

## 썰 이야기



서우드 홀



한국 최초의 썰  
(1932년)

### 미국폐협회 (ALA) 자료

이들은 “크리스마스 썰이라는 이름의 십자군”의 제목으로 미국결핵협회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현 American Lung Association의 전신임)가 Crusade of the Christmas Seal이란 책자를 발간. 크리스마스 썰의 유래와 썰에 관련된 숨은 뒷이야기를 소개한 것으로 2회에 걸친 최종 번역을 소개합니다. (역자 주)

### 조근수 역/결핵협회 홍보부장

웨일즈 박사는 그의 사촌인 비셀양에게 크리스마스 썰의 유래를 설명해 주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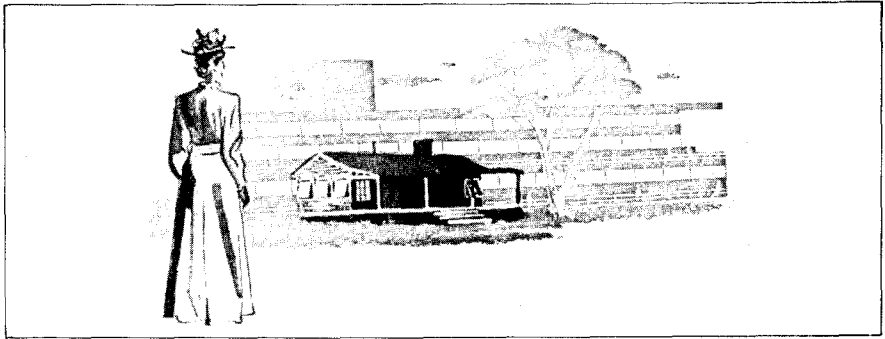
“그래 에밀리야! 내가 말하는 뜻을 알겠지, 우리는 이들 불우한 환자를 도울 기금이 다 떨어졌구나. 단 300불만이라도 어떻게 해서 모을 수만 있다면 이 불행한 결핵환자들을 집에까지지만이라도 보내서 자기 집에서 평온히 죽게나 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들은

# 「크리스마스 썰」 이라는 이름의 십자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퍼트리게 되겠지. 나는 네가 그 방법을 알거라고 믿는다. 우리를 도와 주어야겠어!”라고 애원하면서 말을 맺었습니다.

비셀양은 도움기를 동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사촌오빠가 돌아간뒤에 걱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몇사람만의 뜻으로 여러사람으로부터 기금을 모을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끝에 잡자기 덴마크에서의 크리스마스 썰 운동에 관한 잡지기가 떠올랐습니다. 역시 방법은 있구나! 멀리 떨어진 덴마크에서 크리스마스 썰로 결핵과 싸운다면 같은 방법으로 미국 델라웨어에서도 할 수 있지! 우리라고 브랜디와인 통나무집병원을 위해 필요한 300불 모금에 크리스마스 썰을 사용 못할라구! 하면서 침착하게 머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의 시점이 미국에 있어서도 트루도우 사업, 덴마크 우체국직원의 크리스마스 썰, 브랜디와인 병원의 환자를 위한 기금, 그리고 비셀양의 의지와 용기가 역사속의 위대한 보건십자군의 창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셀양은 지체함이 없이 서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1907년의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은 많았으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첫 생각은 그가 몸담고 있는 적십자사였습니다.

“적십자사가 쌀 운동에 지원을 해줄까? 아니야. 그러나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허락해 줄 것 같아. 쌀이 우체국 우표창구에서 팔게 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러면 우체국 복도에서라도 팔 수 있겠지!” 모든 것이 걱정 투성이었습니다.

우체국장은 이런 제안에 비웃었으며, 사업가들은 그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좌절들이 에밀리 비셀 양을 더욱 곤경 속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미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쌀의 도안을 자신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도안은 화환에 성탄이란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녀는 두 친구로부터 시작할 돈을 꾸어왔습니다. 쌀의 인쇄는 외상으로 하였으며 밝은 적색으로 인쇄된 쌀은 50,000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쇄된 쌀은 자원 봉사자들의 손을 빌려 작은 봉투에 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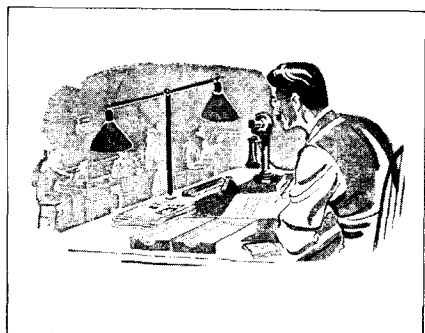
이 넣어 준비하였습니다. 봉투에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밝고 붉은 활자로 아래말을 인쇄하였습니다.

한뼉짜리 쌀 25장이 결핵을 박멸하기 위하여 델라웨이 적십자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쌀을 크리스마스 편지에 붙여서 결핵과 싸우는 데 도움이다  
성탄과 새해 행복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행되는 크리스마스 쌀의 판매가 연말 연휴가 시작되기 수 주전에 워싱턴 우체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비셀 양 자신이 쌀을 샀습니다. 첫날 쌀의 판매액은 25달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일간도 거의 같은 금액만큼만 팔렸습니다. 그런데 쌀은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비셀 양은 필요한 300달러를 모으려면 무엇인가 조치가 취해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도시신문의 위대한 역할

결국 그녀는 다음날 필라델피아시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도시에서 발행되는 주



도적인 신문이 기사를 써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문사에 희망을 갖고 찾아갔으나 또 좌절에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찾아가 설명하면 신문사 사람들은 친절하게 사양하곤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성탄과 연하와 모든 질병중 가장 끔직한 결핵과의 연관이 없다며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비셀 양은 신문사에서 실망에 빠져 뛰쳐 나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평소 좋아하는 기사를 쓰는 사람이 생각에 떠올라 뒤돌아서 그를 만나러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이 미첼 호즈」씨였습니다. 그가 비셀 양에게 찾아온 용무를 묻자 그녀는 그의 핸드백에서 붉은 적색으로 인쇄된 싹을 꺼내 보이면서 찾아오게된 동기와 싹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은 그는 한번에 두계단씩 뛰어올라가서는 편집장 사무실로 난입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편집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한장에 한뼘짜리 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결핵병과 싸우는 방법을 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병이

예방이 되며 치유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적은 돈으로 누구라도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싹이란 것이 어디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누가 주관합니까?”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면서 싹을 들여다 보고 있던 편집장은 “비셀 양에게 우리 신문을 연말까지 활용하라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5만매의 싹을 보내라고 알려주십시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비셀 양은 그 희소식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만매만 인쇄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팔렸으니 어찌지!” 또다른 걱정거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른 좀 더 인쇄를 해야지” 이렇게 하여 싹을 더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호즈 씨는 신문에 크리스마스 싹에 관한 이웃사랑 이야기를 실었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싹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대중에게 전달되었고 미국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 모두가 싹 운동에 적극 찬동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종교단체와 기관, 상사에서 그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계속하여 매일 각면에 싹의 사진을 실었고 크리스마스 싹에 관한 이야기를 신문을 통하여 접하므로서 국민들은 이때에 비로서 결핵에 관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신문사 사무실에서 판매가 시작되는 그날 호즈 씨와 그의 편집장은 싹을 사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흐뭇한 느낌을 갖으면서 만족하였습니다.

## 초라한 어린 신문판매원

가날프고 남루한 옷을 입은 초라하게 보이는 한 어린 신문판매원이 신문사 카운타에 찾아와서 동전 한닢을 올려놓으면서 “쌀 한장 주세요”하고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어린 신문판매원도 쌀 운동이 성공되리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쌀이 결핵과 싸우는데 무엇인가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초라한 어린 신문판매원으로 하여금 믿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결핵과 싸우는 십자군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크리스마스 쌀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첫번째 쌀 모금운동에서 300달러를 모금하려는 계획이 3,000달러를 모금하게 되는 성공적 모금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와인 통나무집 결핵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해내게 되었으며, 더욱 중대한 일은 살인마 결핵과 싸울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 결핵과 싸우는 십자군은 계속 성장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비셀양이 결핵에 대항하는 십자군에 많은 미국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민간봉사기구가 1904년 창설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핵협회는 점차 더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미국국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메시지는 즐거움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쌀에 관한 이야기가 소책자나 포스터를 활용하여 전달되었고, 전시회도 개최함으로써 그들 자신에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그들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하여 마을과 도시 그리고 주마다 항결핵위원회가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결핵협회 지역지부들이 형성되었다).

크리스마스 쌀도 모금이 점점 커지기 시작 하였고 에밀리 비셀양의 1907년 쌀 모금의 성공이후 미국적십자사는 1908년과 1909년도 계속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에도 미국결핵협회는 적십자사와의 협력으로 모금을 계속하였고 1920년에 와서는 미국결핵협회가 단독으로 쌀 모금운동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결핵협회의 사업으로 수백만명의 미국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쌀 운동에 협조하여 결핵과 호흡기질환에 투쟁하는 십자군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징으로는 밝은 적색 복십자가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는 등록문장으로 등록되어 질병, 특히 결핵에 대한 봉사와 증진의 유명한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시민들은 매년 마음과 마음을 잇는 크리스마스 쌀 운동에 참여하는 울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신문판매소년의 한 닢 동전이 매년 수백만달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도움으로 미국결핵협회(현재는 미국폐협회)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여 항결핵과 호흡기 질환과 관련한 많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